

2020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해서 서울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완전 독립적인 스타일이어서 1차 때는 스터디 없이 혼자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공부했어요.(계획 세우는 것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해요!) 의존적인 성향의 쌤들 또는 즉흥적 성격의 쌤들은 제 방식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수 재수 때 합격수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합격수기를 읽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한글 파일에 1차, 2차 나눠서 기록해 놓고, 제가 필요한 시기에 보면서 참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합격수기도 최대한 자세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 장수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 쌤들은 회색글씨는 뛰어넘고 검정 글씨 위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덧붙여진 사진들은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읽기보다 전반적인 양식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수 때와 재수 때 점수

-2019 초수 (서울)

1차 점수	전공	교육학	총점
	43점	13점	56점 (컷 -7)

사립위탁 합격해서 최종면접까지 봤지만 마지막에 탈락

-2020 재수 (서울)

1차 점수	전공	교육학	총점
	56점	18점	74점 (컷 +6.67)

2차	실기	면접	수업실연	지도안	2차 총점	1+2차 총점
점수	27.33점	38.67점	17점	8.8점	91.8점	165.8점 (컷+13.66)

컷에서 +13.66점으로 최종합격

I. 전공 1차

▶초수 때 생활패턴

먼저 저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 바로 임용을 시작했어요. 교직이수를 했고 스터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었고, 합격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어요. 초수 때 마인드가 임용을 초수에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초수 때는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적당히 공부하다가 재수 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후에 정말 두근두근 후회했어요ㅜㅜ) 그래서 1월에 처음 직장을 등록했다가 첫날 수업 때 필기도 다 놓치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바로 인강으로 돌리고 4월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인강 듣는 시간 포함해서 순공부시간이 6시간 정도였어요. 4월에 첫 공개모의고사가 있었는데 등록을 해놓고, 너무 두려워서 가지 못했어요..! 이때 제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시험도 제대로 못보겠구나 싶어서 5월부터는 관리형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급식이 나오는 곳이고, 핸드폰도 내야하고 화장실도 쉬는 시간에만 갈 수 있어요. 월-목 아침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금, 토는 직장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직장을 들고 복습을 바로 해야 하는데 금, 토 직장만 다녀온 후 공부하지 않았고(스터디도 하지 않았습시다.), 일요일에도 공부하지 않고 쉬거나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금, 토 배웠던 내용을 월요일 오전에 복습했어요. 그래도 학원, 독서실에 있는 시간에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고, 하반기에 욕심이 생기면서 시험 디데이 50일 전부터는 친구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초반에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해야 할 공부량은 많고 시간은 부족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서 시험 전날까지 하루 종일 책만 봤지만 합격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ㅜㅜ 심지어 제가 시험 불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커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 전날에는 잠을 1-2시간도 못자는데 임용시험 당일 역시 11시에 누웠지만 결국 한시간정도 자고 시험을 보러갔어요. 옆친데 옆친격 시험 전날 저녁을 먹고 급제를 해서 아침에 헛구역질만 하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시험장에 갔어요. 손도 떨리고 눈도 흐릿하고 긴장은 최고조이고 상태가 너무 안좋았는데 교육학과 전공A형까지는 최대한 정신줄을 잡고 봤어요..!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 B형만 잘 버텨보자 하고 B형을 보기 시작했는데 전공B형에서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어요. 시험지 장수를 2장을 넘겨서 서술형 8번 20줄짜리를 3번 4줄

답안 칸에다가 써버린거예요. 마지막 줄을 쓰고 있는데 묻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해보니 제가 모의고사 때도 하지 않았던 말도 안되는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시험장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ㅜㅜ 꼭 답안지 옮겨 적을 때 문제번호 답안번호 확인하고 적어야해요!) 너무 초반에 큰 실수를 해서 순간 눈앞이 정말 형광노란색으로 보이더라구요. 왈칵 눈물이 났지만 꼭 참고 답안지를 교환해야하는지 고민하다가 교환하면 한 문제를 통으로 못풀 것 같아서 그냥 교환하지 않고 역순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봤던 관화, 한지 문제도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도 모르게 검토포도 못한채로 마무리하고 시험장을 나왔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부터 집에 오는 길 내내 울고, 집 와서 밤까지 펑펑 울고 일몰에 정신 차리고 독서실 짐을 정리한 다음에 짹 털어내고 월요일에 바로 실기학원을 갔어요. 1차 합격자 발표날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립 위탁은 됐고, 사립 시험 준비하면서 수업실연, 면접에 대한 실전감각을 조금 익힐 수 있었어요. 초수의 실패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임용은 자기하기에 따라 달려있으며 초수에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어요.(초수든 재수든 무조건 자신의 합격을 의심하지 마시고,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해요!) 그래서 더 많은 후회를 했고, 다시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월에 공부시작 전에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 초수 때 실패원인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에 앞서 실패원인을 분석해보니 너무 명백했어요. (재수 이상하신 분들은 공부시작 전에 자신의 실패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서 합격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해요~!)

일단 첫째는 노력 부족으로 인한 ‘**공부시간 부족**’이었어요. 제가 직장 나간 날과 주말 시간을 너무 통으로 날렸더라구요. 그리고 친구들 많이 만난 것도 큰 원인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친구들을 만나고, 한 달에 두 번 남자친구를 만났었기 때문에 주말에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둘째는 ‘**기본이론서 회독이 부족**’한 점이었어요. 이론을 배울 시기인 1-4월에 공부시간 부족으로 복습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10-11월에는 문풀 위주로 보기도 바빠서 문풀 위주로 복습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문풀이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지므로 기본이론서, 심화이론서를 복습했으면 더 쉽게 틀을 잡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한지나 관화 애플랜드 등 제가 알고 있는데 당황해서 생각나지 않았던 부분도 마지막에 기본서 회독을 했으면 충분히 기억해냈을 내용이었더라구요.(이론이 가장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후회가 되었던 것은 장지연쌤 위상쌤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내용을 따로 한글파일로 옮겨놓고 관련 내용을 함께 찾아서 타이핑 쳐놓은 30장정도 되는 파일이 있었는데 시험 보기 하루 전에 2-3시간이 부족해서 그 중요한 것을 못 읽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수 시작할 때 다시 읽어보니까 거기서 4-5문제가 나왔더라구요..!(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초반부터 최대 순공부 시간을 끌어올렸고, 단권화노트에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한 내용을 따로 표시해서 항상 회독하며 더 자주 봤었어요.

셋째는 ‘**시험불안과 체력부족**’이었어요. 평소에 예민한 성격은 아닌데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면 제가 불면증, 소화불량, 식욕감소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매우 안좋아져서 이번 임용시험에서도 역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체력관리도 공부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 재수 때 생활패턴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재수 때는 새로운 계획을 바탕으로 정말 ‘기계’ 처럼 공부했어요.

먼저 **강의**는 초수 때도 위상 재수 때도 위상 강의를 들었는데 초수 때 1차 2차 모든 강의를 들었고. 재수 때는 교과서분석과 기출분석 빼고 다 들었어요. 이론 강의는 항상 인강을 들었고 1.7배속정도로 들으면서 2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어요. 5월 문풀부터는 항상 직강을 들으면서 실전감각을 길렀어요. 제가 위상 강의를 선택했던 이유는 문제가 단순 암기식 문제가 아닌 적용력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기출문제와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위상쌤 장지연쌤의 팀티칭 수업의 전반적인 수업방식이 암기위주가 아니라 이해를 먼저 시켜주셨기 때문에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않는 저에게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저는 암기를 포기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회독을 2배로 많이 했어요) 참고로 저는 초수 때 문풀자료, 파이널자료 등 작년 자료도 올해 3번 이상 반복하면서 함께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1인실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번 학원 오는 날이 제일 행복했어요! 지연쌤 위상쌤도 보고, 친한 쌤들

이랑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하면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됐던 것 같아요.

재수 때 생활패턴은 3월부터 11월까지 공부시간이 거의 똑같았어요. 공부할 때는 집이 아닌 독서실을 이용하고 직장은 토요일만 나갔어요. 월-금 아침 8시부터 밤 11:30까지 공부했어요. 점심시간은 30분정도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고 쉬고 1시간 안으로 다시 독서실로 돌아왔어요. 토요일은 직장을 갔다 온 다음에 집에서 밥을 먹고, 저녁 7-8시까지 다시 독서실에 가서 그날 배운 부분을 복습하고 새벽 한시까지 공부했어요. 일요일 낮에는 늦잠을 자고 점심 먹고 1-8시 7시간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일요일 저녁은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고 주간 또는 월간 계획을 세우고 일찍 잤어요. 4월부터 11월 시험 전날까지 하루도 공부를 쉬는 날이 없었고, 월-토 하루에 순공부시간을 13시간 이상으로 잡고, 13시간 이하가 되는 날이 있으면 더 늦게 까지 공부하거나 일요일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초반에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했었기 때문에 후반에 슬럼프 오고, 체력이 많이 약해졌을 때 더 운동시간을 늘리고, 병원도 자주 다닐 수 있었어요.(누구든 시험이 다가오면 시간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3월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쌤들도 일주일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재수 때 3월부터 박세게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도, 나중에 2월부터 공부할걸이라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구요.TT)

▶1차 팁

▷ 답안 작성방법

먼저 한문제당 묻는 내용이 많으므로 문제에 번호를 잘 매겨야 해요! 그리고 문제지 빈 여백에 번호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요약화형식으로 빠르고 간결하게 적은 후 답안지에 줄글로 서술하며 문제를 풀었어요! 취지과 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연쌤께서 취지과악 하나씩 알려주실 때마다 단권화 노트 제일 앞장에 누적해서 기록했고, 단권화노트 회독할 때 같이 공부하면서 내용을 익혔어요. 그리고 한 문제에서 4가지를 물었다고 가정했을 때 4문장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했고, 4줄이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쓰기위해 6줄 이상 썼던 것 같아요!

▷생활 관리

첫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공부에 하나도 도움 되지 않는 SNS 같은 앱 지우고, 친구도 끊었어요. 2월에 친구들 몰아서 만나면서 일 년 후에 보자고 올해는 못만난다고 미리 말했어요. 남자친구도 한 달에 한번 독서실 휴무날인 마지막주 일요일에 공부한 후에 잠시 만났어요.(같은 취준생이어서 가능했어요!) 사람이 너무 그리울 때는 오히려 공감대 형성이 잘되는 같이 임용을 준비하는 몇몇 쌤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른 친구들 만나면 부럽고 같이 놀고 싶고 그랬기 때문에 재수 때는 정말 친한 친구 제외하고는 아예 만나지 않았어요.

둘째, 자신이 **공부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확보**해야 해요. 저는 아침 8시부터 밤11:30분까지 공부했어요. 순공부시간이 하루에 항상 13시간 이상이 되도록 3월부터 11월까지 제가 세운 계획에 맞춰서 꾸준히 공부했어요. 초반에는 적은시간을 공부했다가 점차 늘려가는 쌤들도 많지만 저는 작년에 시험전날에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쉬는 날 없이 공부했어요. 마지막주 일요일이 독서실 휴무라 월 1회는 쉬려고 했는데 3월에 한번 쉬어봤더니 쉬어도 쉬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4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꾸준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매일 공부하면 흐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공부효율이 매우 높아요!) 아플 때도 예외 없이 독서실에 갔고, 너무 두통이 심할 때는 집에 와서 약 먹고 두 시간 정도 폭 자고 다시 독서실 갔었어요. 명절 때도 평소대로 공부했어요. 후회남지 않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해요. 그렇지만 월-일 하루종일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일주일 중 하루는 오전에 충분히 잠을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요일 낮에는 알람을 맞추지 않고 늦잠을 자고, 점심 먹고 1시에서 8시까지 공부하고 저녁에 필요한 자료나 프린트를 뽑고 주간 계획을 세우고 일찍 잤어요.

공부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쉬지 않고 공부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후회가 훨씬 덜 남아요. 흘러가는 시간은 똑같고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뒤에 결과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오로지 합격만 바라보고 노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모두 포기하고 공부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셋째, **공부에 도움 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해요. 그 예로 핸드폰과 멀어지기, 독서실에서 엎드려서 잠가지 않기 등이 있어요. 공부에 도움 되지 않는 습관들이 쌓여서 합격을 막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에 도움 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초반에 노력했어요. 먼저 독서실 밖에 있는 사물함을 하나 더 등록해서 독서실에 도착하자마자 기상스터디 인증샷 보내고 핸드폰을 사물함 안에 넣어놔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쓸 때 없이 폰을 보면서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 했어요. 그리고 독서실에서는 최대한 엎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습관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한번 엎드려 자기 시작하면 피곤할 때마다 엎드리게 되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자는 것은 최대한 자제했어요. 독서실에서 엎드려서 잔적은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 5번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초수 때부터 잠이 올 때나 공부가 잘 안될 때, 행복 노트를 작성했어요. 시험 끝나면 뭐하고 싶은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등등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그 노트에 적어가면서 공부에 다시 집중해야하는 이유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실에서 공기정화식물도 길렀어요. 물도 2주에 한 번씩 주고 창문에 광합성도 시켜주면서..ㅎㅎ 뭔가 독서실에서 나름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넷째, 자신에게 맞는 **스터디를 활용**해야합니다. 저는 저 혼자 공부하는 것이 편해서 일반스터디는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도 1차 때 공부스터디를 해본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기상스터디는 제가 원하는 규칙을 정하고 인원을 모집해서 실시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침 8시까지 자리에 착석해서 타임스태프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정해진 지각과 결석 횟수가 초과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프트콘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제가 스터디장이어서 그런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아침에 벌떡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하니 더 기분 좋게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6월부터 시작했는데 3월부터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침잠이 많은 쌤들께 기상스터디 강추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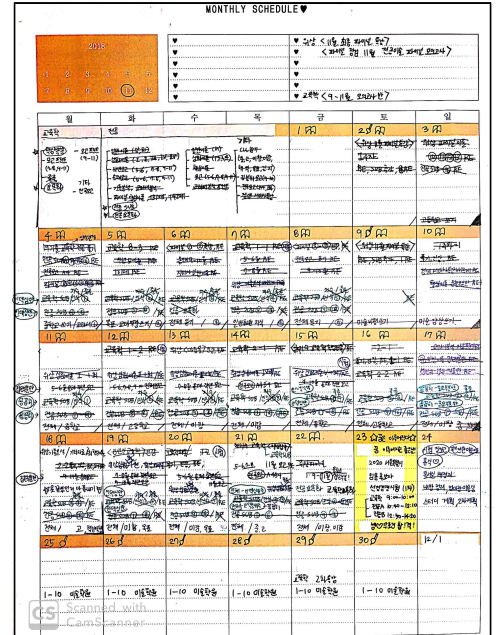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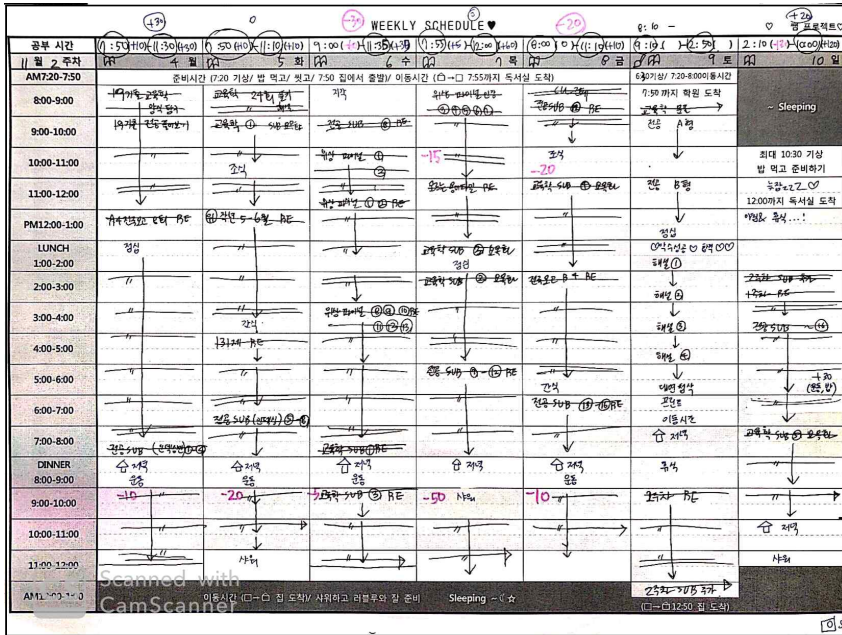
그리고 제가 한 또 다른 스터디는 **교육과정 암기 스터디**였는데, 원래 알고 지내던 친한 쌤이랑 직장 날에 30분정도 일찍 와서 교육과정 빈칸 채워보는 스터디를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교육과정암기를 포기했던 초수때와 달리 재수때는 성취기준, 교수학습방법, 일반화된 지식, 목표까지 다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육과정 암기문제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올해시험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체계적인 계획

첫째, **체계적인 계획**의 중요성이예요 저는 1차, 2차 둘다 계획을 정말 체계적으로 세웠어요. 먼저 2월 달에 놀 때, 월간계획과 주간계획의 큰 틀을 만들고, 어떤 수업을 들을지 리스트를 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3월부터는 일요일 저녁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주간 계획을 세우고, 월별 마지막주 일요일에는 다음 달 월간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인강 듣는 시간을 오전에 먼저 배치하고, 단권화 노트를 2주에 한 번씩 회독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배치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은 꼭 3번 복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복습할 때는 당일, 일주일 뒤, 한 달 뒤를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루에 제가 줄거나 지각하거나 등등 공부외의 시간으로 버린 시간이 있다면 5분이라도 무조건 계획표에 체크해놓고 저녁에 더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주말에 더 공부를 해서 정해진 순공부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전반적인 월별 공부계획은 장지연쌤께서 중요 시기에 한 번씩 말씀해주시는거 참고해서 계획 세웠어요~!

5-6 WEEKLY SCHEDULE ♥						♡월 프로젝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M7:20-7:50	아침 7:20 기상	—공복에 유산균 먹고, 아침밥 먹고 바로 출퇴근인 학교, 학교 원룸리에 있을 8월 방에서 마라 티가, 도시락 챙기고, 날이 한 주고, 7:50 출발				7:10 기상, 아침밥 먹고 샤워하기, 준비하기	
8:00-9:00						7:50-8:30 이동시간	
9:00-10:00	7:55 기상, 독서실	—기상스터디, 단권화에 책상위 단원샷 올리기, 문 사물함에 넣고 공부 시작 (하루 읽고 할 것, 아침 점심 운동시간 적어 왜 시간에 현문 읽다 보지 말 것)				8:30-9:00 스터디	
10:00-11:00	8:00-1:30 공부1					9:00-12:30 전공이론 공부1	
11:00-12:00	20분 교육과정 읽기					12:30-1:30 점심	11:20 기상, 아침 먹고 샤워하기, 커피, 간식, 날이 밝은 양기, 점심하기
12:00-1:00	1:30-2:00 점심					1:30-4:30 전공이론	12:55 머리 욕실
PM1:00-2:00							—전공 사물함에 넣고 공부 시작
2:00-3:00							1:00-4:00 공부1
3:00-4:00	2:00-8:00 공부2					4:30-5:30 이동시간	—물론 공부할 때
4:00-5:00							한주 공부 복습하기
5:00-6:00						5:30-7:00 저녁스터디	—복습 때, 복습시간
6:00-7:00							—단권화 노트 쓰기
7:00-8:00						7:00-12:50 공부2	8:00-9:00 저녁스터디
8:00-9:00	8:10-8:50 저녁스터디						—자녀 학교, 샤워하기
9:00-10:00	9:00-11:30 공부3						8:50-9:30 이동시간
10:00-11:00							—전공 사물함에 넣고 복습하기
11:00-12:00							9:30-10:00 공부
AM12:00-1:00	7시간 공부4					10:00까지 도착 1:30점	10:00-11:30 교육과정 1:00-1:20
1:00-7:20						9:41분 끝나라	일요일 1:00-8:00 (마지막주 일요일은 12)

→주간계획 (요일별 공부시간위주로 큰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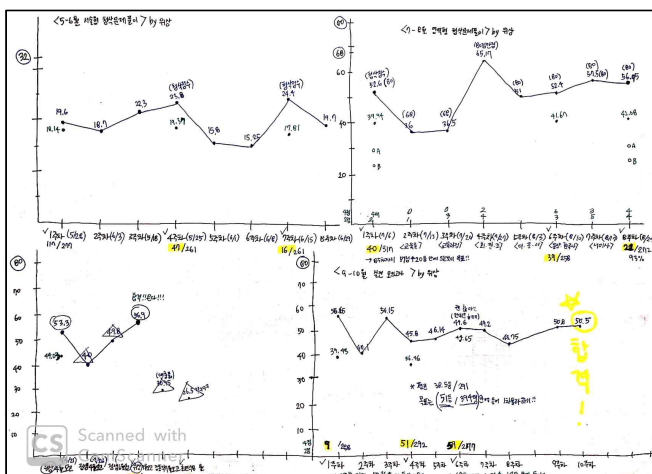


1 일일계획 (일간계획을 토대로 당일에 작성)

2 월간계획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작성)

둘째, **이론을 최대한 많이 회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암기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냥 무조건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백지쓰기는 해본 적 없어요. 그대신 단권화노트를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40-50번 정도 회독을 했어요. 4월에 완성된 서브노트를 5월부터 꾸준히 돌렸고, 처음에는 2주에 한번 회독하다가 시험 직전에는 2일에 한 번씩 회독했던 것 같아요. 이해한 뒤 여러 번 회독을 하면 머리에 오래 남아서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 더 장기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기본이론이나, 문제풀이를 따로 복습하는 것보다는 문제풀이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옮긴 단권화노트를 충분히 회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셋째, **작은 목표에서 점점 큰 목표 세우기**, 저는 학원 모의고사에 의미를 많이 뒀어요. 초수 때는 몰랐는데 재수 때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구나를 깨닫고 스스로 한 달에 한 번씩 목표를 조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와 등수를 그래프로 기록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모의고사에 의미를 두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번 달 모의고사에서는 몇점대, 몇등 할거다, 다음 달 모의고사에서는 몇점대, 몇등 할거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슬럼프 직전까지는 신기하게도 그 바람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가는 날이 좀 더 즐거웠고, 공부가 마냥 힘들지만은 않고 재밌었어요. 꼭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점점 키워간다면 긴 임용고시 공부기간동안 안일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목표한 바를 시험장에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1차와 2차 점수 목표한바와 근접하게 나왔어요.(참고로 초수 때 5월 모의고사에서 꼴등에서 2번째도 해본 적 있어요! ㅎㅎ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정말 당연해요! 조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꼭 합격해요!)



→모의고사 그래프(점수, 등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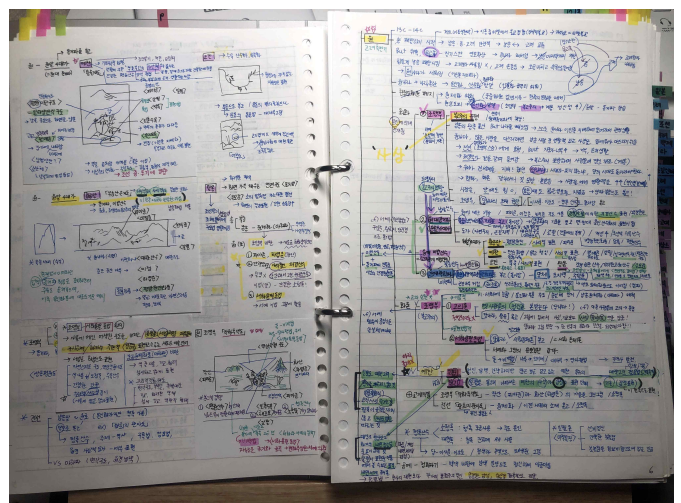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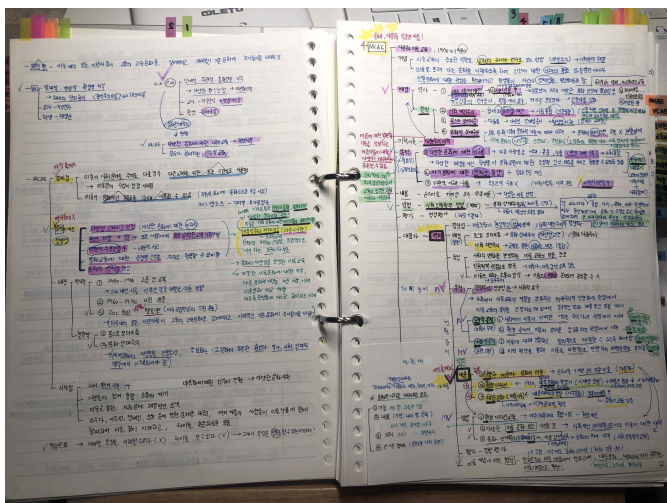
셋째, **단권화** 정말정말 중요해요.(서브노트와는 달라요!) 우리가 공부해야하는 내용이 정말 산더미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모른 채로 조각조각의 정보만 계속 보는 것은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예요. 수기 형식이든, 기존의 기본이론서나 심화이론서를 활용하든 무조건 자신만의 단권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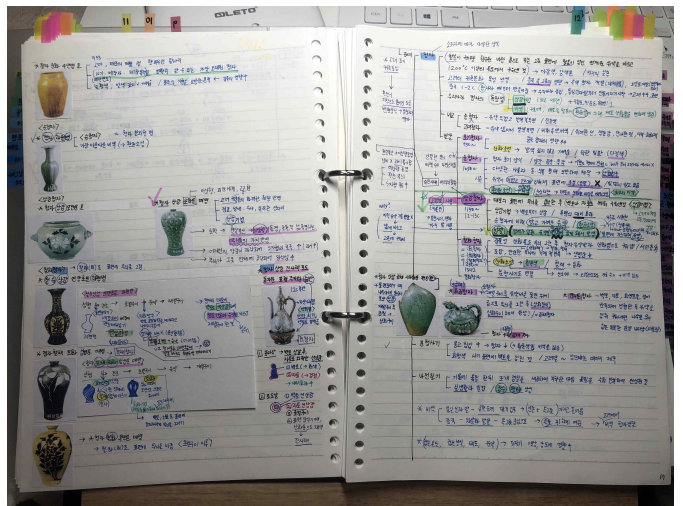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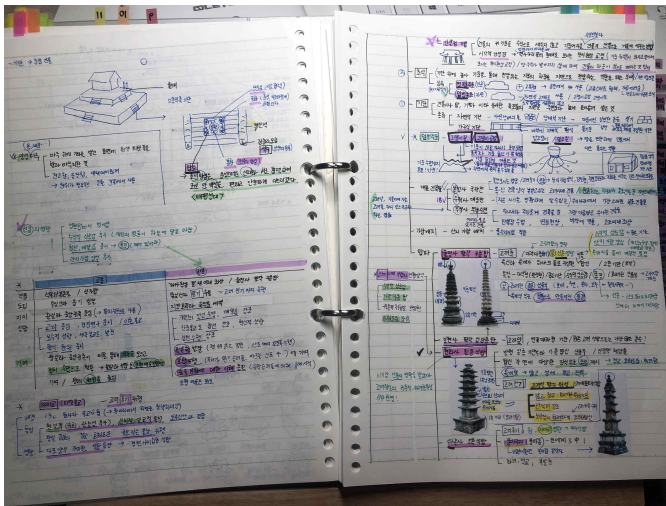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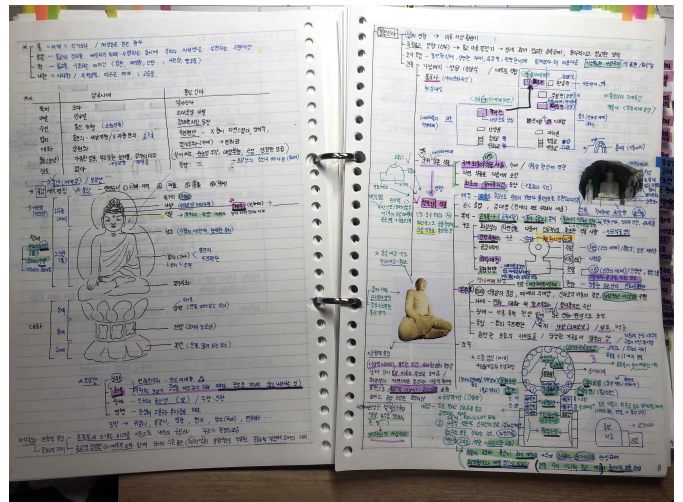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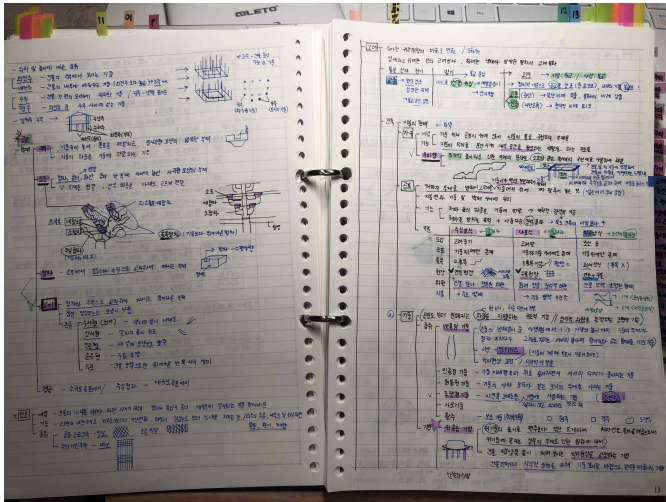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심화이론서를 단면으로 복사하고 기출분석, 교과서분석, 문풀 등의 강의 시간에 들은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교과서 또는 필독서를 볼 때, 해당하는 내용이 적혀있는 페이지 옆면 여백에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누적하면서 나만의 자료를 시험 직전까지 충분히 회독한다면 책의 모든 내용이 내 머릿속에 요목화 되어서 저절로 정리가 돼요. 오개념이 있더라도 예전에 내가 써놓은 내용과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단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권화 방법은 기본서나 심화프린트에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수기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서는 양면이니, 심화프린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일단 초수라면 시간이 없으니 절대 수기로 직접 만들지는 마시고. 양면으로 인쇄된 심화프린트에 A4 용지를 사이사이 끼워 넣거나, 단면으로 인쇄된 심화프린트를 활용해서 단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수 이상이라면 직접 기본서나 심화서를 보고 기본 틀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4월에 정말 심승생승해서 공부가 잘 안될 때, 종이를 찢다 꺾다 할 수 있는 노트를 구매한 후, 기본이론 심화이론 인강을 한 번에 들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한면에 바로바로 요목화해서 정리하면서 단권화노트의 기본 틀을 만들었어요. 후에 왼쪽 빈 여백에 오른쪽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계속 누적해서 정리하면서 단권화 노트의 양을 늘려나갔고, 이 노트를 끊임없이 회독했어요. (동미사 한미사 중요도판은 따로 프린트해서 이론, 문풀 수업때 배운 내용을 적고 단권화노트와 함께 계속 복습했어요.) 처음 틀을 만들 때, 직접 쓰면서 꼼꼼히 내용을 보니까 실기하면서 잊혀졌던 이론도 다시 확실하게 머리에 잘 들어왔고, 생각보다 시간도 덜 걸려서 틀 만드는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진 단권화노트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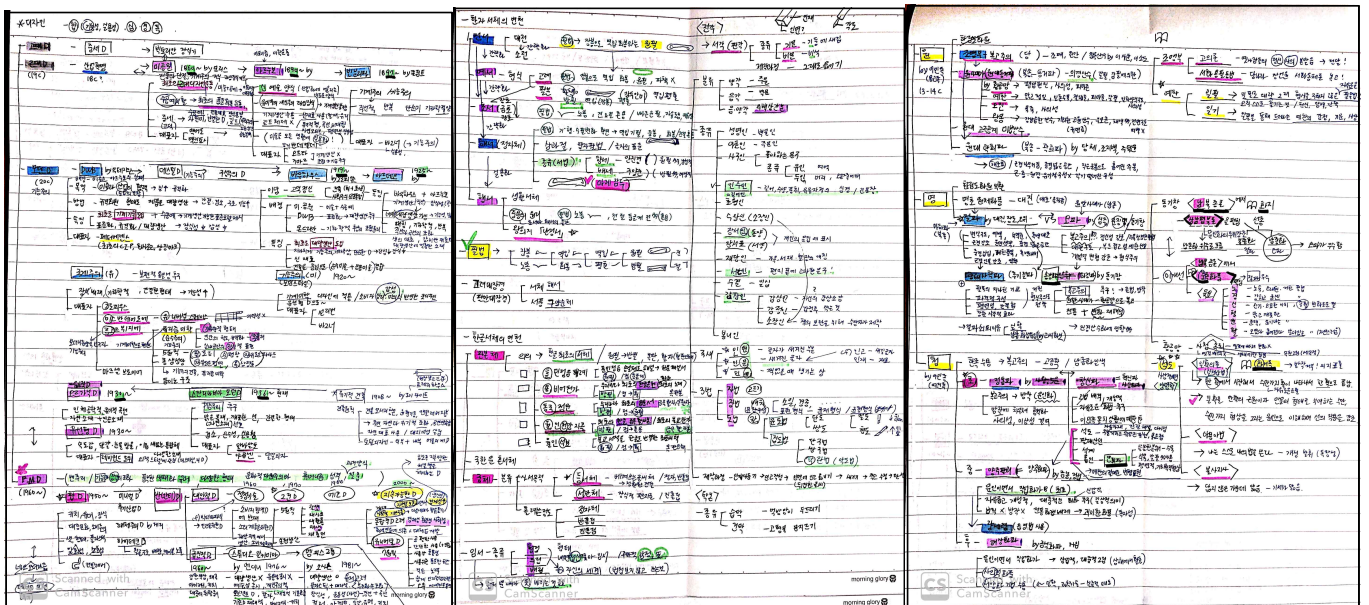
또한 단권화가 완료되면 파트별로 세부적으로 인텍싱 작업을 해야 해요! 그래야 원하는 페이지를 빨리빨리 찾아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저는 단권화 노트를 1,2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론서 상, 하 내용으로 구분했고, 1은 1-8번까지 비슷한 양으로 나눠서 표시했고, 2는 9-16번까지 비슷한 양으로 나눠서 표시했어요~! 그래서 복습할 때 초반에 세세하게 복습할 때는 1-2복습, 3-4복습 등 하루에 2개를 보도록 계획을 세웠고, 후반으로 갈수록 1-4복습, 5-8복습 등 하루에 4개를 보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11월에는 1-8복습, 9-16복습 하루에 한권을 복습할 수 있도록 계획 했어요. 추가로 1순위로 중요한 것은 노랑형광펜, 2순위는 분홍형광펜, 중요한데 내가 자주 까먹는 내용은 연두형광펜, 내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보라형광펜으로 구분해서 표시했어요! 또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1순위-노랑인텍스, 2순위-분홍인텍스, 3순위-주황인텍스, 4순위-연두인텍스로 따로 표시해두고, 시간이 남는 날에는 1-2순위만 골라서 복습하거나 1-4순위위주로 복습하는 등 중요한 내용을 더 자주 보기 위해서 단권화 노트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시험 한 달 전에는 단권화노트를 기반으로 **요목화**노트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저는 쓰면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스트레스 없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전공은 40장 단면으로 요약했고, 교육학은 미리 요목화 되어있는 종이 15장에 중요 세부내용을 깨알같이 적어서 요목화 했어요. 이렇게 요목화해 놓으면 시험 전에 하루 만에 전공과 교육학을 동시에 돌리기도 시간이 조금 남아요. (사실 시험당일 쉬는 시간에 불자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당일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야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남짓 돼요. 정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꺼운 책을 가져가면 조금만 보다가 끝나버려서 오히려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얇은 정리본을 들고 가면 좋아요!)





↳ 단권화 노트



↳ 요약화 노트

넷째, 청킹입니다. 초수 때는 청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수 때 우연히 듣게 된 교육학강사가 우연히 청킹을 강조해서 자연스럽게 청킹하는 습관이 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전공에도 적용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방법은 정말 전체점수를 5점정도 올려주는 방식 이었다고 생각해요!(단권화는 10점!) 단권화 노트에 청킹으로 앞글자를 동그라미로 표시해놓고 회독을 여러 번 하니 저절로 머릿속에 남더라구요. 예를 들어 창의적 문제해결법의 순서를 ‘문인 아이디어 탐 정 적’ 이라고 외우면 당황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빈칸 넣기 1점 점수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학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 교문화유형 명칭도 따로 암기한 적이 없는데 호프하면 ‘기기공공’이라는 청킹이 기억에 남아서 기계문화를 쓸 수 있었어요. 청킹하는 습관을 기르면 숨어있는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자투리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하기, 저는 집에서 5분 거리 독서실을 다녔고, 점심때는 도서관을 어머니께서 싸주셔서 밥시간을 30분 이내로 절약했고, 저녁에는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또한 일주일에 두 세번은 헬스장에서 간단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투리시간 모두 사실 간접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밥시간, 집에서 독서실까지 왕복 10분, 운동시간, 심지어 샤워 시간 등 작은 자투리시간도 모두 활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교육학 요점 정리해주는 부분을 따로 녹음을 해서 듣거나, 교육과정을 제 목소리로 녹음해서 들었어요. 교육과정은 100프로 암기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시험 디데이 50일이었을 때도 다 암기하지 못한 상태여서, 미창, 미감부분은 만들어진 노래로 암기했어요. 결국 이번 시험에서 교육과정 암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초수 때는 포기했던 교육과정을 재수 때도 포기한다면 합격을 포기하는 거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암기했어요. 꼭 교육과정 암기가 아니더라도 자투리시간을 활용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요!

▷체력 관리 · 멘탈관리

첫째, 운동을 통한 **체력관리**예요.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했어요. 평소에 ‘운동을 하고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운동을 안하고 몇 년 일찍 죽을래!’ 라는 말을 할 정도 였어요. 그래서 초수 때는 운동을 한 적이 없었지만 마지막에는 밥을 먹고 바로 책상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지더라구요. 그래서 재수 때는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주일에 두 번 삼십분 정도 런닝머신을 뛰었어요. 근데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다 보니, 운동량이 부족했고, 9월 지나서는 병이 나기 시작 하더라구요. 이때가 저에게 굉장한 슬럼프였는데, (가을까지 잘 버텨주길래 저에게는 슬럼프가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10월에 한번 심한 감기를 앓고 나서 극심한 소화불량과 스트레스 우울증이 모두 동반되어서 모의고사 점수도 10점 이상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시험이 얼마 안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인 모를 두통이 2주 동안 지속됐는데 병원을 가면 다 열이 없다고 했어요. 의사쌤이 화병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통 때문에 공부가 집중이 하나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 였어요. 근데 제가 이 슬럼프를 극복한 방법이 바로 운동이었어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아닌, 실외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는 운동! 일주일에 네 다섯 번 정도 저녁시간에 저녁 먹고 어머니랑 아파트 근처를 조깅하기 시작했어요. 1인실 독서실 방 한 칸에 갇혀서 매일 공부하다보니까 산소가 뇌에 공급이 잘 안됐었는지, 밖의 공기를 운동하면서 마시게 되니까 신기하게도 저절로 두통이 없어졌어요. 저녁에 운동을 해야 그날은 책상에 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의원 침도 맞고 한약도 먹으면서 초반보다 마지막에 더 운동시간 많이 확보하면서 체력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기전인 임용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모두 꼭 체력관리 제대로 하면서 공부하셔야 해요 ㅌㅌ

둘째, **시험불안 극복방안**을 마련해서 멘탈을 관리해야 해요. 저는 유리멘탈에다가 시험불안이 극도로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에 의지했어요. 불면증에 도움 되는 스팀안대, 아로마 스프레이, 잠 잘 오는 베개, 생체리듬 조절해주는 의료목걸이, 소원 팔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플라시보 효과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또한 시험 한 달 전부터 심신이 불안정할 때는 청심환을 먹었고, 한의원에서 소화 잘되는 침, 불면증에 도움 되는 침도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전날에는 다행히 3시간 정도 자고 시험 보러갈 수 있었어요! ㅎㅎ(지금까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1시간 이상 자본적이 없어요ㅠ) 또한 저는 마지막 직강 날에 지연쌤 위상쌤께 악수해달라고 부탁했어요!(초수 때 악수 못해서 후회했던 기억이 있었어요ㅎㅎ) 시험 당일에 정말 한문제 한문제 풀 때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높아서 별별 떨면서 풀었는데 멘붕 올 때마다 아니야 쌤들이 나 합격한다고 했어 괜찮아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펜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시험불안이 심하다면 미리 자신에게 맞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지 시험 전날이나 시험 당일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시험 전날에 잠 잘 오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시험전날 밤에 충분히 운동해주는 것이예요! 시험 전날이라고 평소와 다르게 너무 일찍 공부 끝내고 일찍 자려고하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험 전날에도 저녁 먹고 40분 운동하고 밤11시까지 공부하고 12시 반에 침대에 누웠어요.)

II. 전공 2차

▶ 2차 생활패턴

2차는 체력싸움이에요 저는 사실 1차 때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우울증을 동반한 슬럼프가 크게 와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2차보다는 1차가 5배정도 힘들었었는데, 보통 다른 쌤들은 2차가 1차보다 5배로 힘들다고 말해요 ㅎㅎ

저는 토요일에 1차 시험을 보고 일요일 하루 쉬고 바로 월요일부터 실기학원 나갔어요. 전체적인 스케줄은 실기는 초수 때와 재수 때 모두 주 6일 나갔어요. 스터디는 총3개를 꾸준히 했는데 수업실연과 면접스터디를 일주일에 2회씩 했고, 스터디 과제가 너무 많을 때는 1-2주에 한번 수요일에 쉬었던 것 같아요. 월화목금 아침 10-12시까지 스터디 하는 시간이었어요. 실기 끝나고 새벽시간은 스터디 과제하는 시간이었고, 일주일에 받은 3-4시간 자고, 나머지 받은 7-8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2차 때는 친한 쌤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말도 많이 해서 정신적으로는 편찮았는데, 잠이 너무 부족해서 신체적으로 체력부족으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3-40분정도 면접레시피와 시책 읽는 전화스터디를 꾸준히 했어요. 2차는 '스터디'가 필수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쌤들을 많이 만나서 2차 공부를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고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지연쌤 2차 강의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초수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재수 때는 고민하다가 듣지 않았지만, 그때 공부한 자료와 선생님의 피드백을 모두 기록했었기에 재수 때도 자료를 토대로 복습하면서 기본 틀을 잡았던 것 같아요. (면접 수업실연 지도안작성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가르쳐주세요!) 특히 다른 쌤들께서 수업실연하시는 것을 보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침 그리고 2차는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실기 면접 실연 모두 모든 조건을 꼭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저는 시험장에서 조건을 다 잘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씩 못 지킨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분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면접이랑 실연할 때 둘다 10초 남기고 딱 끝냈어요.

2차준비 기간 동안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스터디도 여러 개여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 계획은 필수인 것 같아요! 2차는 실기, 면접, 실연 순으로 설명할게요.

MONTHLY SCHEDULE ♥ 2차

10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월 1주

12월 2주

12월 3주

12월 4주

12월 5주

12월 6주

12월 7주

12월 8주

12월 9주

12월 10주

12월 11주

12월 12주

12월 13주

12월 14주

12월 15주

12월 16주

12월 17주

12월 18주

12월 19주

12월 20주

12월 21주

12월 22주

12월 23주

12월 24주

12월 25주

12월 26주

12월 27주

12월 28주

12월 29주

12월 30주

12월 31주

12월 32주

12월 33주

12월 34주

12월 35주

12월 36주

12월 37주

12월 38주

12월 39주

12월 40주

12월 41주

12월 42주

12월 43주

12월 44주

12월 45주

12월 46주

12월 47주

12월 48주

12월 49주

12월 50주

12월 51주

12월 52주

12월 53주

12월 54주

12월 55주

12월 56주

12월 57주

12월 58주

12월 59주

12월 60주

12월 61주

12월 62주

12월 63주

12월 64주

12월 65주

12월 66주

12월 67주

12월 68주

12월 69주

12월 70주

12월 71주

12월 72주

12월 73주

12월 74주

12월 75주

12월 76주

12월 77주

12월 78주

12월 79주

12월 80주

12월 81주

12월 82주

12월 83주

12월 84주

12월 85주

12월 86주

12월 87주

12월 88주

12월 89주

12월 90주

12월 91주

12월 92주

12월 93주

12월 94주

12월 95주

12월 96주

12월 97주

12월 98주

12월 99주

12월 100주

12월 101주

12월 102주

12월 103주

12월 104주

12월 105주

12월 106주

12월 107주

12월 108주

12월 109주

12월 110주

12월 111주

12월 112주

12월 113주

12월 114주

12월 115주

12월 116주

12월 117주

12월 118주

12월 119주

12월 120주

12월 121주

12월 122주

12월 123주

12월 124주

12월 125주

12월 126주

12월 127주

12월 128주

12월 129주

12월 130주

12월 131주

12월 132주

12월 133주

12월 134주

12월 135주

12월 136주

12월 137주

12월 138주

12월 139주

12월 140주

12월 141주

12월 142주

12월 143주

12월 144주

12월 145주

12월 146주

12월 147주

12월 148주

12월 149주

12월 150주

12월 151주

12월 152주

12월 153주

12월 154주

12월 155주

12월 156주

12월 157주

12월 158주

12월 159주

12월 160주

12월 161주

12월 162주

12월 163주

12월 164주

12월 165주

12월 166주

12월 167주

12월 168주

12월 169주

12월 170주

12월 171주

12월 172주

12월 173주

12월 174주

12월 175주

12월 176주

12월 177주

12월 178주

12월 179주

12월 180주

12월 181주

12월 182주

12월 183주

12월 184주

12월 185주

12월 186주

12월 187주

12월 188주

12월 189주

12월 190주

12월 191주

12월 192주

12월 193주

12월 194주

12월 195주

12월 196주

12월 197주

12월 198주

12월 199주

12월 200주

12월 201주

12월 202주

12월 203주

12월 204주

12월 205주

12월 206주

12월 207주

12월 208주

12월 209주

12월 210주

12월 211주

12월 212주

12월 213주

12월 214주

12월 215주

12월 216주

12월 217주

12월 218주

12월 219주

12월 220주

12월 221주

12월 222주

12월 223주

12월 224주

12월 225주

12월 226주

12월 227주

12월 228주

12월 229주

12월 230주

12월 231주

12월 232주

12월 233주

12월 234주

12월 235주

12월 236주

12월 237주

12월 238주

12월 239주

12월 240주

12월 241주

12월 242주

12월 243주

12월 244주

12월 245주

12월 246주

12월 247주

12월 248주

12월 249주

12월 250주

12월 251주

12월 252주

12월 253주

12월 254주

12월 255주

12월 256주

12월 257주

12월 258주

12월 259주

12월 260주

12월 261주

12월 262주

12월 263주

12월 264주

12월 265주

12월 266주

12월 267주

12월 268주

12월 269주

12월 270주

12월 271주

12월 272주

12월 273주

12월 274주

12월 275주

12월 276주

12월 277주

12월 278주

12월 279주

12월 280주

12월 281주

12월 282주

12월 283주

12월 284주

12월 285주

12월 286주

12월 287주

12월 288주

12월 289주

12월 290주

12월 291주

12월 292주

12월 293주

12월 294주

12월 295주

12월 296주

12월 297주

12월 298주

12월 299주

12월 300주

12월 301주

12월 302주

12월 303주

12월 304주

12월 305주

12월 306주

12월 307주

12월 308주

12월 309주

12월 310주

12월 311주

12월 312주

12월 313주

12월 314주

12월 315주

12월 316주

12월 317주

12월 318주

12월 319주

12월 320주

12월 321주

12월 322주

12월 323주

12월 324주

12월 325주

12월 326주

12월 327주

12월 328주

12월 329주

12월 330주

12월 331주

12월 332주

12월 333주

12월 334주

12월 335주

12월 336주

12월 337주

12월 338주

12월 339주

12월 340주

12월 341주

12월 342주

12월 343주

12월 344주

12월 345주

12월 346주

12월 347주

12월 348주

12월 349주

12월 350주

12월 351주

12월 352주

12월 353주

12월 354주

12월 355주

12월 356주

12월 357주

12월 358주

12월 359주

12월 360주

12월 361주

12월 362주

12월 363주

12월 364주

12월 365주

12월 366주

12월 367주

12월 368주

12월 369주

12월 370주

12월 371주

12월 372주

12월 373주

12월 374주

12월 375주

12월 376주

12월 377주

12월 378주

12월 379주

12월 380주

12월 381주

12월 382주

12월 383주

12월 384주

12월 385주

12월 386주

12월 387주

12월 388주

12월 389주

12월 390주

12월 391주

12월 392주

12월 393주

12월 394주

12월 395주

12월 396주

12월 397주

12월 398주

12월 399주

12월 400주

12월 401주

12월 402주

12월 403주

12월 404주

12월 405주

12월 406주

12월 407주

12월 408주

12월 409주

12월 410주

12월 411주

12월 412주

12월 413주

12월 414주

12월 415주

12월 416주

12월 417주

12월 418주

12월 419주

12월 420주

12월 421주

12월 422주

12월 423주

12월 424주

12월 425주

12월 426주

12월 427주

12월 428주

12월 429주

12월 430주

12월 431주

12월 432주

12월 433주

12월 434주

12월 435주

12월 436주

12월 437주

12월 438주

12월 439주

12월 440주

12월 441주

12월 442주

12월 443주

12월 444주

12월 445주

12월 446주

12월 447주

12월 448주

12월 449주

12월 450주

12월 451주

12월 452주

12월 453주

12월 454주

12월 455주

12월 456주

12월 457주

12월 458주

12월 459주

12월 460주

12월 461주

12월 462주

12월 463주

12월 464주

12월 465주

12월 466주

12월 467주

12월 468주

12월 469주

12월 470주

12월 471주

12월 472주

12월 473주

12월 474주

12월 475주

12월 476주

12월 477주

12월 478주

12월 479주

12월 480주

12월 481주

12월 482주

12월 483주

12월 484주

12월 485주

12월 486주

12월 487주

12월 488주

12월 489주

12월 490주

12월 491주

12월 492주

12월 493주

12월 494주

12월 495주

12월 496주

12월 497주

12월 498주

12월 499주

12월 500주

12월 501주

12월 502주

12월 503주

12월 504주

12월 505주

12월 506주

12월 507주

12월 508주

12월 509주

12월 510주

12월 511주

12월 512주

12월 513주

12월 514주

12월 515주

12월 516주

12월 517주

12월 518주

12월 519주

12월 520주

12월 521주

12월 522주

12월 523주

12월 524주

12월 525주

12월 526주

12월 527주

12월 528주

12월 529주

12월 530주

12월 531주

12월 532주

12월 533주

12월 534주

12월 535주

12월 536주

12월 537주

12월 538주

12월 539주

12월 540주

12월 541주

12월 542주

12월 543주

12월 544주

12월 545주

12월 546주

12월 547주

12월 548주

12월 549주

12월 550주

12월 551주

12월 552주

12월 553주

12월 554주

12월 555주

12월 556주

12월 557주

12월 558주

12월 559주

12월 560주

12월 561주

12월 562주

12월 563주

12월 564주

12월 565주

12월 566주

12월 567주

12월 568주

12월 569주

12월 570주

12월 571주

12월 572주

12월 573주

12월 574주

12월 575주

12월 576주

12월 577주

12월 578주

12월 579주

12월 580주

12월 581주

12월 582주

12월 583주

12월 584주

12월 585주

12월 586주

12월 587주

12월 588주

12월 589주

12월 590주

12월 591주

12월 592주

12월 593주

12월 594주

12월 595주

12월 596주

12월 597주

12월 598주

12월 599주

12월 600주

12월 601주

12월 602주

12월 603주

12월 604주

12월 605주

12월 606주

12월 607주

12월 608주

12월 609주

12월 610주

12월 611주

12월 612주

12월 613주

12월 614주

12월 615주

12월 616주

12월 617주

12월 618주

12월 619주

12월 620주

12월 621주

12월 622주

12월 623주

12월 624주

12월 625주

12월 626주

12월 627주

12월 628주

12월 629주

12월 630주

12월 631주

12월 632주

12월 633주

12월 634주

12월 635주

12월 636주

12월 637주

12월 638주

12월 639주

12월 640주

12월 641주

12월 642주

12월 643주

12월 644주

12월 645주

12월 646주

12월 647주

12월 648주

12월 649주

12월 650주

12월 651주

12월 652주

12월 653주

12월 654주

12월 655주

12월 656주

12월 657주

12월 658주

12월 659주

12월 660주

12월 661주

12월 662주

12월 663주

12월 664주

12월 665주

12월 666주

12월 667주

12월 668주

12월 669주

12월 670주

12월 671주

12월 672주

12월 673주

12월 674주

12월 675주

12월 676주

12월 677주

12월 678주

12월 679주

12월 680주

12월 681주

12월 682주

12월 683주

12월 684주

12월 685주

12월 686주

12월 687주

12월 688주

12월 689주

12월 690주

12월 691주

12월 692주

12월 693주

12월 694주

12월 695주

12월 696주

12월 697주

12월 698주

12월 699주

12월 700주

12월 701주

12월 702주

12월 703주

12월 704주

12월 705주

12월 706주

12월 707주

12월 708주

12월 709주

12월 710주

12월 711주

12월 712주

12월 713주

12월 714주

12월 715주

12월 716주

12월 717주

12월 718주

12월 719주

12월 720주

12월 721주

12월 722주

12월 723주

12월 724주

12월 725주

12월 726주

12월 727주

12월 728주

12월 729주

12월 730주

12월 731주

12월 732주

12월 733주

12월 734주

12월 735주

12월 736주

12월 737주

12월 738주

12월 739주

12월 740주

12월 741주

12월 742주

12월 743주

12월 744주

12월 745주

12월 746주

12월 747주

12월 748주

12월 749주

12월 750주

12월 751주

12월 752주

12월 753주

12월 754주

12월 755주

12월 756주

12월 757주

12월 758주

12월 759주

12월 760주

12월 761주

12월 762주

12월 763주

12월 764주

12월 765주

12월 766주

12월 767주

12월 768주

12월 769주

12월 770주

12월 771주

12월 772주

12월 773주

12월 774주

12월 775주

12월 776주

12월 777주

12월 778주

12월 779주

12월 780주

12월 781주

12월 782주

12월 783주

12월 784주

12월 785주

12월 786주

12월 787주

12월 788주

12월 789주

12월 790주

12월 791주

12월 792주

12월 793주

12월 794주

12월 795주

12월 796주

12월 797주

12월 798주

12월 799주

12월 800주

12월 801주

12월 802주

12월 803주

12월 804주

12월 805주

12월 806주

12월 807주

12월 808주

12월 809주

12월 810주

12월 811주

▶ 실기

▷ **인체소묘** : 실기는 초수 때 다녔던 노량진에 있는 실기학원을 갔어요. 저는 입시 때 인체수채화로 입시를 했었기 때문에 인체 형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도움이 됐었어요. 인체소묘에서는 형태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묘사력이 좋아도 형태가 나가면 형태가 완고한 그림에 밀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모델이 아닌 사진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모델을 보고 그릴 때처럼 머리 크기를 연필로 재서 실전처럼 비례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인체가 잘리지 않고, 세로 가로 1cm정도만 남게 자신감 있게 꼭 차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명암대비를 확실하게 주고, 멀어지는 부분은 풀어지는 강약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공기원근법 활용하기!) 세부묘사는 그리면서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추세**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번 시험에 스텔에 기대어 바닥에 앉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요즘 임용이 1차도 2차도 기존의 틀에서 많이 변화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딱 2020학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데 의자에 앉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세 많이 연습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심상표현 재료도 다양한 재료 많이 써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심상표현에 전 붓대량 깃털을 주로 연습했었는데 마침 공간표현이 나와서 두 개다 같이 그리고 나왔어요. 파스텔도 시험 직전에 써봤던 재료라서 친근했어요. 그런데 시험 당일이 되니까 긴장되고 손이 굳어서 평소보다 시간이 좀 모자르더라구요. 사람이 바닥에 앉은 자세라서 화면에 크게 들어가서 그릴 면적도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이번에 서울 재료제한이 풀렸잖아요. 저는 <2B, 6B는 미즈비시, 4B는 톰보우 모노100> 사용했었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은 4B로 하고, 머리카락 검은 의류 등은 6B 사용하고, 얼굴 세부 손, 발은 중간단계에서부터는 2B로 마무리했어요.

시험장 상황은 대기실에 모두 모여서 관리번호를 뽑아요. 시험시작 15분전부터 모둠별로 강당으로 재료를 들고 이동해요. 모델 한 명당 10-11명에서 봤고, 모델과 2M거리정도 떨어져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시작하기 5분? 전에 재료와 조건이 적힌 종이를 주시는데 조건 꼭 꼼꼼히 읽으셔야 해요! 모델은 초반에 형태 잡을 때만 25분 섰던 것 같아요. 포니테일로 머리 묶은 아이보리 플리스 집업과 갈색 치마레깅스를 입은 20대 젊은 여자가 모델로 나왔고, 플리스와 가죽 스텔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배경에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 **디자인** : 디자인은 저는 저에게 맞는 패턴을 하나 받아서 계속 연습했었어요. 초수 때와는 다른 패턴이었는데 패턴이랑 친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최대한 밝고 환하게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배경도 무지개 색으로 깔고 귀여운 캐릭터도 넣고 호감형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항상 밝게 그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수목담채기법과 풍자화 나왔을 때도 해봤던 주제는 아니었지만 그렸던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은 소묘보다 더욱 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그림을 완성하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도 주어진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나만의 패턴이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가 잘 드러났는지에요!) 추가로 핀터레스트 앱 많이 활용해서 다양한 자료사진 많이 찾아 봤었어요~!

시험장 상황은 소묘를 하고, 점심시간을 가진 후 시험시작 20분? 전에 시험실로 모둠별로 재료를 들고 이동합니다.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데 개인당 책상 2개가 붙어있고, 통로 쪽 책상 옆에는 이젤이 세워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 그림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 했어요! 그리고 역시 시험시작하기 5분 전쯤에 미리 조건이 적힌 문제지를 나눠줘요. 문제는 성찰을 표현하는 것이 주제였고, 참고 도판은 김홍도의 씨름도와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간혀있는 풍자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목담채 기법을 활용해야했으며, 재료는 한지, 포스터 칼라(흰, 검, 빨, 파, 노), 붓펜이 나왔어요. 눈으로 구상을 하다가 시험이 시작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초반 30분은 일어서서 그리는 게 제한되어있어서 앉아서 스케치하는 연습도 미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려봤던 그림 3장 정도를 혼합해서 30분 안에 스케치했었어요. (스케치 시간은 최대 30분 이상을 넘기면 안돼요.)

▶면접

면접스터디는 초수 때는 하지 않았지만 재수 때는 타교과 쌤들이랑 했어요. 미술쌤들은 실기시간이 많아서 면접 공부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니 무조건 타교과 쌤들이랑 면접 준비하시는 것 추천해요. 원래 말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편은 아닌데 스터디를 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보니 나중에는 초반보다 훨씬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스터디할 때 답변 내용뿐 아니라 태도 등 다방면으로 피드백해주는 것이 좋아요~!)

스터디 방식은 먼저 1차 발표 전까지는 4명에서 면접레시피를 단원별로 나눠서 뒷부분에 파이널 문제를 토대로 구상형2문항, 즉답형1문항, 추가질문 2문항을 각자 실제시험 양식처럼 워드로 문제지와 예상 답안지를 작성해오고, 실제로 만나서 사다리타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문제를 12분 동안(실전에서는 15분동안 구상) 동시에 구상해보고 바로 실전처럼 15분 말해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피드백했어요. 또한 따로 면접밴드를 만들어서 기출위주로 일주일에 4명에서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문제 올리고 모두 다음날까지 모두 답변 달고, 다른 사람 답변에 피드백 하는 것도 했어요.(피드백시에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각자 피드백내용이 적힌 포스트잇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복습의 효율성을 높였어요.) 또한 2020시책을 요약정리 했는데 말은 파트를 표형식으로 요약해서 나중에 최종 취합하고, 스터디 마지막 날에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은 부분 위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3시간 정도 가졌고, 이를 녹음해서 틈날 때 들었어요.

1차 발표이후 스터디방식은 1차합격자 두 명에서 한분을 더 충원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때는 면접레시피의 기출문제 위주로 했어요. 그리고 추가질문은 시책으로 항상 문제를 내서 시책도 함께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깨알 팁은 실기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사실 면접레시피와 시책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치잖아요. 근데 봐야할 건 너무 많고, 이럴 때 제일 스트레스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유튜브였어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튜브나 지금서울교육, 서울교육나침반 등을 활용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교육트렌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행복한 교육은 안봤어요!) 저는 이걸 마지막에 시도했어서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실기 이동시간에 교육청 유튜브 보면 시책 내용도 줄글로만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친숙해져요. 그리고 시책 내용을 토대로 대화 나누는 전화스터디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됐구요! 시책은 최대한 많이 보면서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면접문제가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암기식의 문제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조언, 교직원 등의 문제 비중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사실 시험 당일에 조금 당황했었어요. 면접레시피 위주로 내용을 습득하는데도 매우 시간이 부족했어서 교직원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많이 못했었던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끝났을 때 너무 아쉬웠고, 대답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떨었고, 많이 못봤다고 생각해서 최저점도 찾아보고 잠도 설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 2차에서 면접점수가 제일 덜 깎였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쌤들도 스스로 예상한 점수가 꼭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편안하고 차분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 상황은 대기실에서 관리번호 추첨 후에, 순서대로 책상에 앉고 한 교실에 두 명씩 구상실로 갑니다. 구상실에는 벽에 붙여져서 놓여있는 두 개의 책상이 있는데(서로 떨어져 있어요.) 책상 위 검정펜과 빨간펜만을 사용하여 15분 동안 구상형 1번과 2번 문제를 구상합니다. 구상이 끝나면 옆 교실인 면접실로 들어가게 되고 면접관 3분이 책상에 앉아가시고 그 앞에 4-5M정도 되는 거리에 마주보고 책상에 앉게 됩니다. 인사하고 앉고 답변을 시작하는 순간 15:00 카운트다운시계가 함께 시작됩니다.(매번 변화가능성 있음) 시간 3분 남았을 때 톱말을 들어서 알려주십니다. 면접 답변이 끝나면 인사하고 퇴실합니다.

그리고 **복장**은 일요일에 하루 날을 잡아서 직접 사러 갔었어요! 베이지에 가까운 연갈색 체크 치마정장에 카라 없는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스타킹은 검스, 구두는 밤색 구두 신고 반묶음 하고 화장 최대한 연하게 하고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은 대부분 70%가 블랙의상 많이 입더라구요. 근데 저는 면접도 밝게 입으면 좋은 것 같아서 최대한 밝게 입는 것을 추천 드려요!

그리고 학습목표를 쓰고 바로 전개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습목표를 큰 활동이 끝날 때마다 명시해줬고, 활동이 바뀔 때마다 박수 두 번 크게 치고 앞에 주목시키면서 집중시켰어요. 모둠 활동시 순서를 칠판에 간략하게 적어주고, 모둠활동 시간을 명시했어요. 순회지도는 3번 정도 했는데, 1잘하는 학생 칭찬하기 2 뒤쳐지는 학생 또는 질문 있는 학생 피드백하기 3갈등 있는 학생들 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하기 3가지로 정해서 순회지도 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학습목표를 한 번 더 이끌어내도록 유도하고 수업을 마무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전반에 걸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의미 있는 발문을 활용해서 학생의 입을 통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학습방법마다 자신만의 틀을 만들고 중요한 요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해요.

지도안작성은 2차 자료 중 기출예상 답안 보면서 연습했어요.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핵심발문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중간중간 활동 정리해주면서 깔끔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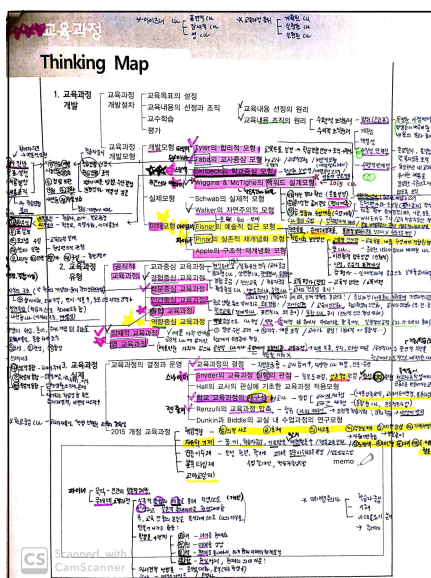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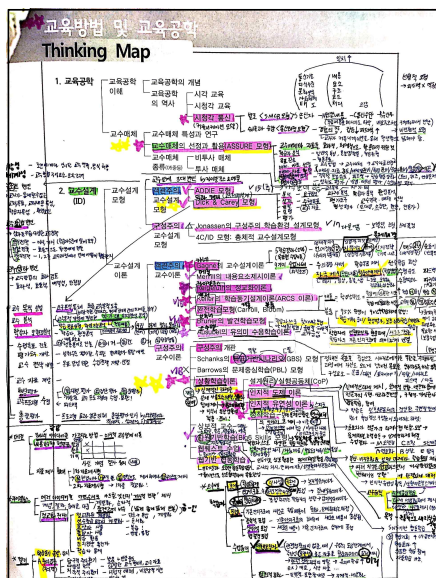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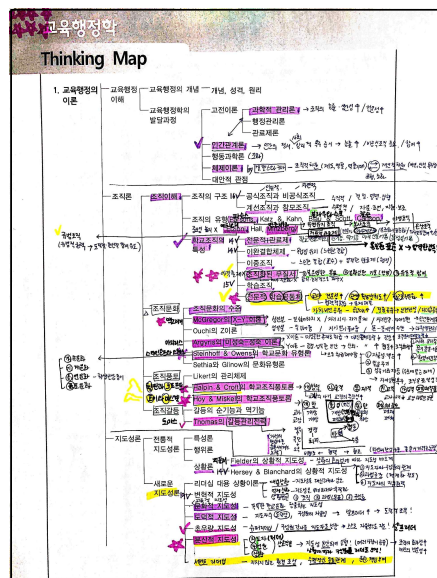
그리고 시험 때 무조건 목소리 크게! 자신감 있게! 웃는 얼굴로! 학생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가고 많이 노력해야하며, 말이 빨라지지 않게 주의해야하며, 또박또박 말하며 내용을 잘 전달해야합니다. 또한 분필칠판에 수업실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판서를 한다면 무조건 예쁜 글씨로 체계적으로 판서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복장은 면접 때 입었던 블라우스, 연체크 마이 그대로 입고 하의만 검정 슬렉스로 바꿔 입었어요.

결론은 면접이나 수업실연 모두 '꾸준한 연습'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차 발표 이후에도 실기에만 올인 하지 않고 1차 발표 이전처럼 일주일에 2회 정도씩 스터디를 꾸준히 했어요. 2차는 뭐든지 꾸준히 하다가 차근차근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잠은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몰아서 자도 되니까 꼭 체계적으로 스터디 계획 세워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2차 준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III. 교육학

교육학은 전공에 비해 친숙하지 않아서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냥 1월부터 11월까지 한강사 믿고 쪽 갔어요. 일주일에 두 번(화,목) 인강 듣는 시간 포함해서 5시간정도씩 공부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화요일 목요일에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했어요. 교육학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는 않았고, 답안 쓰는 연습도 하반기에 10번 내외로 연습했어요. 대신 문풀 때는 모범답안 최대한 많이 보려고했고 교육학 역시 복습할 때, 이전에 배운 내용을 계속 누적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두꺼운 교재보다 좀 얇게 요약된 교재위주로 여러 번 회독했어요.(초수때 너무 두꺼운 교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재수 때는 처음부터 얇은 교재 위주로 공부했어요. 재수 때 방법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한 달 전에는 15장으로 요약화 정리된 프린트만 계속 봤어요! 교육학은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누적복습도 굉장히 중요하합니다! 10월까지 교육학 공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마지막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늦어도 5월부터는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전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학 15%, 전공 85%정도로 공부했어요!^^



↳ 교육학 요약화

▶마무리

마지막으로, 후회가 남지 않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임용 정말 힘들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이번 임용 공부할 때였어요. 임용시험이 길어질수록 부담감이 배로 커지더라고요. 초수 때와 비교도 안될 만큼 재수 때는 모든 시험에서 불안증이 너무 커서 정말 간신히 버텼던 것 같아요. 이 힘들음을 다시 반복했을 때 고통이 배가 될 것 같아서 더더욱 기를 쓰고 공부했어요. ㅏㅏ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내가 간절한 만큼의 공부를 했다면 딱 그때 합격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초수 때 간절한 마음과 달리 합격할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군가 저에게 올해 꼭 합격할 거예요 라고 하면 저는 저 올해는 합격 절대 못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재수 때는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합격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합격할 거라고 저 자신을 믿고 끝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모두 선생님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끝까지 버티신다면 합격은 어느 순간 손에 잡힐거예요! 그러니 오로지 자신만의 싸움 안에서 앞만 보고 달리면 좋겠어요.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다른 쌤들께서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실테니! 저는 약간 쓴소리를 하자면 임고생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해요. ㅎㅎ 맛있는 거 먹고, 쉬고, 놀고, 자고 등등 인간의 여러 욕구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임용에 합격해서 참선생님이 될거다!’ 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와 나’ 둘만 세상에 남겨요! 쌤들 딱 1년만 그렇게 버텨요. 임용은 길어질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이 힘들음의 무게는 나중에 내가 얻게 될 행복의 무게가 될 거예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의 **2021 미술임용 합격**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	♡ 전공~
♡	♡ 교육학~
♡	♡
♡	♡
♡	♡
♡	♡
♡	♡

[illegible]